

LOCAL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완도,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추진 ‘박차’

장흥, ‘과수화상병’ 예방 배·사과 농가 약제 공급

장흥군은 최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방제 약제와 작업도구용 소독용품을 공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가 검역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여 화상병이라고 불린다.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농가의 사전 예방이 필수이며 방제약제 살포뿐만 아니라 작업 도구 소독과 과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공급한 약제는 사전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3종으로, 개화 전 1회(3월 하~4월 상), 개화기 2회(꽃이 80% 수준 개화 후 5일경 2차, 2차 방제 10일 후 3차 방제)로 총 3회에 걸쳐 방제해야 한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약제 공급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미리 예방하고 혹시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임종국 선생 3월 역사인물 선정 장흥 축령산 편백숲 일군 조립왕

장흥군이 장흥 방문의 해를 맞아 3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장흥역사인물’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인물은 장흥 축령산 편백숲을 가꾼 조립왕 춘원 임종국 선생이다.

임종국 선생(1913~1987)은 6·25전쟁으로 민둥산이 돼버린 축령산에서 21년간 편백숲을 일궈다. 오늘날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조립 성공지로 손꼽히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됐다.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했다.

군은 앞으로 ‘이달의 역사인물 선정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매달 지역 내 역사인물을 발굴·선정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장흥 방문의 해를 맞아 장흥을 빛낸 역사적 인물들을 널리 알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축령산 편백숲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 중이다. 초록숲 그린 하이로 탄소중립·산림교육(국립장흥숲체험), 숲의 기능과 탄소중립(국립방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장흥편백산마늘영농조합법인)과 탄소중립 숲 프로그램(백련동편백농원)이 대표적이다. 정흥=이항범 기자 ihb6699@

5월 3일 ‘장보고의 날 지정’...청해진 관광 자원화 추진 신우철 군수 “역사·문화 가치 고취...해양도시로 거듭”

완도군이 해상 실크로드의 선구자인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을 계승해 역사·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선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청해진 1200주년 기념사업, 청해진 유적 관광 자원화, 법화사 재건, 장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분야 장보고 대사 선양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군은 지난해 10월 ‘장보고 대사 선양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월 3일을 ‘장보고의 날’로 지정했다.

장보고의 날 제정 기념식은 오는 5월 3~6일 열리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연계 진행되고, 청해진 유적 국가유산 지정 4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6월 26~28일 개최한다.

2028년에는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지 1200주년이 되는 해로 군은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군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해진 유적을 체험형 관광 자원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사진은 완도를 축청리에 위치한 장보고 동상.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청해진 유적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다.



영광군은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2025년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영광, 다양한 교육 생태계 활성화 모색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논의

영광군은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2025년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4년 영광군인재육성 기금 결산보고, 2025년 인재육성장학금 선정요강, 2025년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수, 교육장, 군의원, 학교장,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장학금 지급

기준, 대학생 등록금 및 재단 출연금 지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하반기 출연을 앞둔 영광군 미래교육재단과 관련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면밀한 토의가 이어졌다.

장세일 군수는 “올해는 영광군인재육성 기금 300억원을 달성하고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하는 중요한 한 해다”며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목포, 청년 맞춤형 창업·소통 공간 시설 조성

청년 쉼터 다락·청년센터 누리, 운영 준비

목포시가 청년의 창업·소통을 위한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및 휴식공간인 ‘목포 청년 쉼터 다락(多樂)’과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인 ‘목포 청년센터 누리’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쉼터 다락은 은근동에 위치해 있으며, 1층은 창업공간(카페), 2층은 소통공간으로 운영된다. 1층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2층은 지역 청년들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40여권의 도서가 마련돼 있어 독서가 가능하며, 모임 및 스터디를 위한 회의실

도 대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시는 청년 쉼터 다락의 1층 창업공간에 대한 운영자 공모 선정을 진행한 뒤 5~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시설인 청년센터 누리는 보광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421㎡)의 창업 지원 시설로, 7개의 창업 점포 공간(총면적 252㎡)과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로 구성된다.

창업 점포 공간은 사용 허가를 통해 운영되며,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에는 전시·공유 공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실, 문화프로그램실, 코워킹 스페이스, 공

유 오피스 등 창업자들의 업무와 네트워킹을 돕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목포 청년센터 누리에는 4월 준공 후 하반기에 관련 부서가 일부 이전해 연말 또는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지원과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시는 두 청년 시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청년 쉼터 다락과 목포 청년센터 누리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도전하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및 복지 공간이 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목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수항에 7만7000t급 ‘노르웨이인 스카이하호’ 입항

영미권 관광객 2000여명 탑승

지난 12일 여수항에 국제크루즈 ‘노르웨이인 스카이하호’가 입항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국 노르웨이인 크루즈 라인(NCL) 선사의 ‘노르웨이인 스카이하호’는 7만7104t, 길이 258m에 달하는 대형 크루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승객 2005명과 승무원 859명 등 2864명을 태우고 여수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승객들은 여수에 약 10시간을 머물며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수산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제주로 출항했다.

시는 여수항 입항 크루즈를 대상으로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



해설사 및 통역 인력 배치, 터미널 내 임시 환전소·관광안내소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탑승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여수항에는 총 8항차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크루즈선 입항 금지 해제 이후 가장 많은 항차”라며 “이 추세를 따라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영미권 관광객 2000여명 탑승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NAVER 나코스